

동국대 교비 474억 전용 물의

불교병원 건립에 사용...지난달 교육부 감사, 400억 환수 조치

학교측, "교비전용 금지한 2002년 12월 이전 일...소급 적용 안된다" 주장



동국대 학생이 조계사 앞에서 교비 전용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동국대가 일산불교병원(이하 불교병원) 건립 재원으로 대학 교비 474억여원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동국대 총학생회가 이번 학기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대학본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법인사무처의 중요문서들을 입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학생들은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7일까지 본관 점거농성 과정에서 '2002년도 불교병원실무위원회 회의자료'와 '2003년도 불교병원 개원 추진단 불교병원 회계처리' 등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 이 가운데 '99년부터 총공사비 약 1천억 가운데 781억을 교비로 집행했으며 추후로 235억 추가 집행할 것'이라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지난 4월 22일 교육부 감사 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월 6, 7, 8일 사흘간 재단 법인 사무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문제가 된 781억 가운데 일부 불교병원 건립 기금을 제외한 400억

억원의 교비를 환수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비 전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 나온 것은 2002년 12월로 교육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던 1998년~2002년 사이의 병원건립 비용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17일 동국대 재단이사회 임원선출·결산 승인 등 처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현해) 제200회 재단이사회가 6월 17일 동국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이사회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신입 임원 선출과 2003학년도 결산 승인, 중앙대 필동부속병원 매입 승인, 기숙사 건립, 경주 캠퍼스 분관 건립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신입 임원 선출을 위해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는 지난 1월 전 불선사 주지 일면스님과 종회의원 해림스님을 정대스님 후임으로, 총동창회 원운선 수석부회장과 동국대 이재창 명예교수를 서문각 이사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상태다.

한편, 동국대 재단은 지난 199차 이사회에서 2003학년도 결산 감사 보고 중 의료원 남품업체 선정과 필동 중대부속병원 매입 계약금 გადა 지급문제로 이사회 간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건봉사 능파교 보수공사 중 무너져

보호시설 설치 미비,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봉곡전 능파교의 모습(사진 왼쪽)과 6월5일 능파교 홍예석이 붕괴돼 바닥에 떨어졌던 모습



능파교 홍예석이 붕괴돼 바닥에 떨어진 사진 제공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강원도 고성 건봉사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능파교(凌波橋·보물 제1336호)가 6월 5일 보수공사 도중 무너져 내려앉아, 보다 세심한 복원공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량 석축에 일부 변형이 생겨 지난해 8월부터 보수공사를 해왔던 능파교는 5일 홍예석 주변의 돌을 부분해체해서 다시 쌓던 중 홍예석이 내려앉았다. 사고 원인은 홍예고 하부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면석을 쌓아올리던 중, 북쪽으로 하중이 쏠리며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치형 홍예고는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큼 남쪽과 북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 쌓을 수 있다.

무너진 홍예고 석재는 다리 아래의 암반과 부딪쳐 파손이 심한 상태로, 현재 석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파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측 조사 중이다.

문화재청에서는 "공사 시행 전에 능파교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해 원래 모습대로 복구하는데 어

려움을 없애 줄 것"이라며 "복구공사 추진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이 보강조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유관단체에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건봉사 능파교 붕괴사건은 문화재청과 해당 기관의 문화재보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문화재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종단과 당해 사찰의 요구가 반영되지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 숙종 38년(1708년) 건립된 능파교는 하천의 자연암반을 기초로 두터운 지대석을 깔고 다리 중앙에 홍예(虹霓·무지개 모양의 문)를 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울스님 경찰에 강제연행



사건제공=천성산 대책위

부패 천성산 개곡 마을 공사현장에서 행사 15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6월 11일 현재 스님은 양산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강제연행되면서 지울 스님은 "묵언장진하며 단식에 돌입하겠다"며 "내가 연행돼도 관동저지 운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조건부 신고시설 공청회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 및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신고 시설장, 학계, 지자체, 언론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로카미트라 법사 22일 내한 강연회

인도 불교 부흥운동의 주역 로카미트라 법사(사진)가 6월 22일 방한해 6박 7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간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인도불교부흥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소개하는 강연회 등을 통해 인도불교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 불교계의 관심으로 유도하고, 시민단체 운동가들과 불교공체제 운동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6월 24일과 25일 재가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유신 기자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열려



제17회 청소년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칠성중학교의 '탈춤' 공연.

대상에 칠성中 탈춤공연

풍광! 풍광! 덩기덕 똥 더더덕덕~! 6월 6일 동국대 중앙당에서는 팽과리, 장고, 징, 북 등 민속타악기들의 명명나는 연주와 탈춤, 전통무예 등 화려한 춤사위 한마당이 열렸다. 2004년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 해를 맞아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최

19회 불이상 장지현·김성철 교수

시상식 7월5일 신라호텔

제19회 불이상 수상자로 실천 분야에 진각복지재단 장지현(45) 사무처장인, 연구분야에 동국대 김성철(46)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6월 11일 열린 불이상 심사위원회의에서 수상자를 확정했다.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종교인평화회의 전문위원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중앙본부 상임부회장을 맡아 북한과의 교류를 불교포교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철 교수는 폭넓은 불교학 이해를 바탕으로 증권학 분



이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최근 <원효의 판비랑론 기초연구>를 펴내는 등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구분야 수상자로 뽑혔다.

불이회는 1974년 만들어진 재가여성불교단체로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85년 제정 매년 시상해왔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영빈관. 여수령 기자

부처님은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무심(無心)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참된 웰빙을 맛본다!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총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지치 않고 씩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어나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맑고 시원한 경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출간 2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책 이름: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 자: 문화영
펴낸 곳: 도서출판 수선재
펴낸 날: 2004년 5월 6일
가 격: 9,000원
분 량: 240쪽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